

에스겔10장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옛날 유대인들처럼 되지 않도록, 저들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데 우리들도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속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처럼 살게 도와주시고 순종하므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내적으로 이것을 누리면서 험한 세상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장 9절입니다.

9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너는 또한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다 담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대로 삼백구십 일을 먹을 지니라. 너는 네가 먹을 음식을 무게로 달아서 하루 이십 세켈씩 때를 따라 그것을 먹을지니라. 너는 또한 물도 되어서 마실지니 육분의 일 힉씩 때를 따라 마실지니라. 너는 그것을 보리 과자처럼 먹되 그것을 그들의 목전에서 사람에게서 나온 똥으로 구울지니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가 그들을 쫓아낸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들의 불결한 빵을 이같이 먹으리라."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아,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내 혼이 더럽혀지지 않았사오니 이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은 내가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내 입에 넣지 아니 하였음 이니 이다."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사람의 똥 대신에 쇠똥을 주노니 너는 그것으로 네 빵을 준비할지니라."하시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식량 봉을 꺼낼 것이요, 그들은 근심하며 빵을 달아서 먹고 놀라며 물을 되어 마실 것이니, 이는 그들이 빵과 물이 부족하여 서로 놀라며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소멸되어 감이라."

굉장히 잔인하게 보입니다. 지금 잡곡을 섞어서 먹으라는 것은 굉장히 가난해 졌다는 얘기죠. 굉장히 가난해 졌다 그리고 음식을 10절에 보니까 무게를 달아서 하루 20 세겔씩 때를 따라 먹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무게로 단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극심합니까? 보통 얘기다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레위기서에 경고를 했어요. 우리 한 번 레위기서 2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하시고 하시지 절대로 갑자기 어떤 재앙을 갖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26절을 보면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징계가 온다 이런 주의인데

"또 내가 너희의 식량 봉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빵을 구워서 다시 저울에 달아 너희 빵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만족하지 아니하리라."

환란 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죠. 환란 때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이미 봤죠.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에서 이미 봤기 때문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린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와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 때 네 짐승들의 한 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되가 한 데나리온이며 보리 석 되가 한 데나리온이더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하더라." 자 지금 무게로 음식을 달아 가지고 배급하는데 하루에 20 세겔입니다. 하루에 한 끼가 아니고 하루에 20 세겔인데 이것이 요즘으로 치면 말이죠. 한 475 그램 정도 됩니다. 475 그램이면 한 파운드 도 안 돼요, 그걸 하루 종일 먹어야 되요 하루 종일, 기가 막히죠. 또 이것을 세 끼로 나눠보세요 어떻게 되나? 한 파운드 도 안 되는 양을 세 끼로 나눠보세요 그것 먹고 살아야 되요 이것이 환란 때도 이루어집니다. 환란 때 넘어 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이것을 세 끼로 나눌 때에 여러분 기가 막혀 계산을 해 보면 한 세겔이면 말이죠. 곡식 알갱이가 200몇 십 개 되요 알갱이 2백 몇 십 개면 얼마나 되겠어요. 한 끼에 20 세겔이니까 한 끼에 한 천오백개 도 안 돼 이런 것을 먹고 살아야 되요 기가 막히죠. 한국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적은 없었

어요. 11절 보니까 너는 또한 물도 되어서 마실지니 육분의 일 한씩 때를 따라 마실지니라. 힌이란 것은 요즘 말하면 리터로 0.4리터예요 미리그램으로 하면 40미리 리터예요 많아야 그런 거예요. 지금 말하면 0.4리터 쉽게 얘기해서 그들이 하루에 마실 수 있는 물이 손가락 하나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그것 먹고 살아야 되요. 빠짝 마르겠죠, 이럴 수 있을까? 뒤에 가보면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 보다는 더 악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앗 시리아 군대들이 이스라엘 북쪽 사마리아에 와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행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가하면 앗 시리아 왕이 그럼 하나님의 법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신들을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이방신에게 재물을 받쳤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때에 따른 말씀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이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것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보는지 몰라요 교회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행하는지 보면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크리스찬들이 타락하면 제일 먼저 물질을 칩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말을 안 들으면 몸을 칩니다. 중풍 걸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옛날 교회에서 어떤 분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신데 그 분 아들이 목사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 살림을 차리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러시면 안되죠, 정리 하셔야죠, 그랬더니 나이드 얼마 안 되는 게 함부로 나한테 얘기해! 하고 탁 나가더니 나가자 말자 중풍 걸려버렸어요. 이게 뭔가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주님이 머리신데 함부로 그러면 이게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죠. 12절 보니까 너는 그것을 보리 과자처럼 먹되 그것을 그들의 목전에서 사람에게서 나온 똥으로 구울지니라. 여러분 과자가 딱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음식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두 천사와 주님께서 오셨을 때 고운 가루로 만든 과자로 주님과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고운 가루로, 딱딱해 진 거예요 얼마나 영성하면 과

자가 딱딱하겠어요. 이것을 끼니로 때우라, 기가 막힌 얘기죠, 만드는데 사람의 똥으로 태워 가지고 연료로 사용 하나 말이죠. 이거야 말로 가혹한 징계죠, 사람의 똥이 말이죠, 엄청나게 냄새가 납니다. 옛날 시골에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약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쇠똥을 가지고 태워서 뭐하는걸 제가 냄새를 맡아 봤는데 쇠똥도 지독한 데 사람의 똥은 말도 못한 거죠 그야말로 굉장히 냄새가 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레위기서 26장을 다시 가 보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단한 과자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말까지 있는가 하면 27절을 보면 다섯 번째 징계인데 이런 모든 일이 있는데도 너희가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내게 반대하여 행하면 나도 진노 가운데서 너희에게 반대하여 행하리니, 나, 곧 내거 너희를 너희 죄들에 대하여 일곱 배로 징계하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자 14절 보세요.

아, 주 하나님이어! 보소서, 내 혼이 더럽혀지지 않았사오니 이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은 내가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내 입에 넣지 아니 하였음 이니이다.

이건 뭐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보면 이건 들어 줄 수 없는 얘기죠, 전혀 들어 줄 수 없는 얘깁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죠, 우리 한 번 이사야서 65장 2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구약 성경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자 구요.

2절. 내가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 손을 종일 폈나니 그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좇아 선하지 않은 길에서 행하며 동산에서 희생제를 지내며 벽돌로 만든 제단에서 분향하여 계속해서 내 얼굴에 대고 나를 성내게 하는 백성이니 그들은 무덤들 사이에 거하고 은밀한 장소에서 유숙하면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들로 만든 국물을 그들의 그릇에 담고 말하기를 “네 자리에서 있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너 보다 더 거룩함이라.” 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라.

요즘 WCC가 뭐니까! 다른 이방종교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요즘 그러는 게 아니고 벌써 10 여 년 되었어요. 10년 전에 한국일보에 난 것을 봤는데 어느 한국 교회에서 앞에는 승들이 목탁을 두드리고 옆에는 개신교 성가대가 서있고 그 다음에 카톨릭 사제가 있구요. 세 부류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세상 기자가 기가 막혀서 냈더라구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러니 이스라엘과 똑같아 졌습니다. 이스라엘 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똑 같아 졌습니다. 하나님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도 이렇게 하니 이 얼마나 가증합니까, 손을 계속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편 50편에서처럼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하나 하나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죠, 왜 징계를 합니다. 그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징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한 번 히브리서 12장 가보겠습니다. 1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 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맞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이야,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메질 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아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몇일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 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환란에 넘어가서 징계를 받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죠. 옛날 매질할 때 끝까지 맞는 아이가 사랑스럽죠. 그것을 피하고 이런 애들은 미워하면서 더 때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뺐는데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생각을 안 해요 요즘 사람들도 그렇죠. 어려움이 오면 내가 하나님께 한 행동은 전혀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한 것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 같습니다. 지금이나 그 때 사람이나 똑 같습니다. 옛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의 보자기에서 부정한 영들을 보여 주면서 이것 잡아먹어라 했죠. 어 난 이런 것 먹은 적 없다. 맞죠, 율법에선 그것을 금했기 때문에 먹은 게 없다고 그랬고 그랬죠, 그런데 고넬료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처음으로 그들이 볼 땐 이방 죄인을 부정한 사람들이죠, 구원하려고 뭘 보여 준 건데 잡아먹으라고 했는데 몰랐습니다. 하인을 보내 가지고 고넬료 집으로 인도해서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다 임하고 성령 충만한 것을 보고 침례를 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도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고 아 예 못 먹겠다고 한 것처럼 에스겔도 어떻게 사람의 똥을 가지고 하겠느냐? 좀 봐 달라고 그렇게 말씀 했죠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사람의 똥 대신에 쇠똥을 주노니 너는 그것으로 네 빵을 준비할지니라.”

이거야 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1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식량 봉을 꺾을 것이요, 그들은 근심하며 빵을 달아서 먹고 놀라며 물을 되어 마실 것이니, 이는 그들이 빵과 물이 부족하여 서로 놀라며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소멸되어 감이라."

여기 보면 식량 봉이라고 그랬죠, 봉이란 게 뭐냐면 중국에 봉술이 있어요. 이 동글동글한 막대인데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게 나오죠. 이것이 뭐가하면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봉이란 것은 의지하는 것 식량 봉을 꺾는다는 것은 식량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봉을 꺾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식량을 없애버릴 것이다. 굶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 한다는 거죠,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이복도 식량이 없으니까 가 본 사람이 그러는데 아이들을 잡아먹는다고 그래요 96년도만 해도 제가 연변에 가서 조선족 의사를 만났습니다. 부인이 친척이 있으니까 먹을 것을 갖다 주려고 갔는데 친척 애기가 뭔가하면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쥐 굴을 혈어 가지고 거기서 쥐들이 먹다 남은 것을 그것을 구해다가 먹는데요 그래서 병에 걸려 죽게도 하고 쥐가 먹려고 갖다놓은 것을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먹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애깁니다. 저는 96년도에 들었으니 지금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먹을 게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눈이 뒤집힙니다. 여러분 남한은 잘 살고 있잖아요.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약 TV에 나오는 것을 보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다 살이 찌고 그런걸 보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굶어 죽는데도 어떤 새로운 통치자는 살이 이만큼 찌 가지고 살이 이렇게 찌더라구요. 그걸 볼 때 사람들이 맘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참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 동족들이 한국 남쪽에 살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들을 위하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들이 살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큰 교회가 지금 WCC 그 목사님이 총재가 되어 있으니 이거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얼마나 가증한 것이겠습니까, 양떼들은 몰라요 WCC가 뭔지 일반 양떼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들이 안다면 그렇게 못 해요 속이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함께 같이 멸망길로 가는 거죠, 기가 막힌 애깁니다. 이스라엘이 자식들을 잡아먹을 정도로 이렇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겠습니다. 경험했어요. 이 사람들 이미 경험했는데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오늘 날 도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조금 있으면 또 잊어버려요. 열왕기하 6장 24절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는 후에 시리아의 벤하닷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모아 올라 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니라. 그 때 사마리아에는 큰 기근이 들었는데 보라 그들이 성읍을 계속 포위 하였으므로 머리 하나가 은 팔십 세겔에 또 비둘기 통 사분이 일 갑이 은 다섯 세겔에 팔렸더라. 이스라엘 왕이 성전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왕을 향해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도우소서 하자 주께서 너를 도우시지 않는데 내가 어찌 너를 돕겠느냐? 하고 또 왕이 말하기를

너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 그녀가 이 여인에게 대답하기를 네 아들을 내 놓으라. 오늘은 우리가 그를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으리라 하니 그녀가 자기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더라. 시리아 지금 시리아가 있죠, 시리아가 이스라엘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을 이야기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었죠, 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가. 포위하고 있으니깐 꼼짝 못 하니깐 아이를 잡아먹었어요. 기가 막힌 얘기죠, 지금부터 29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때 얼마나,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 목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그러한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이제 남은 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뭐 이번 주일이 크리스마스 날인데 아직도 사람들은 얘기 크리스마스를 가지고 장식을 해 놓고 크리스마스 날이 가장 죄를 많이 짓는 날입니다. 청소년들이 범죄를 제일 많이 하는 날이고 술 제일 많이 먹는 날이고 나이트클럽 마다 제일 북적거리는 날이고 이제 무슨 크리스마스 날입니까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크리스 에다가 매스가 들어 간 거예요. 매스라는 것은 칼로 찌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뭐라고 거러요? 엑스마스(X-Mas)! 엑스(X) 맨 이라고 들어 보셨죠. 엑스 맨! 이걸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엑스 맨 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그리스도에다 엑스를 붙이는 거예요. 엑스(X)마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예수그리스도를 계속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 팔아 가지고 대목 경기 보잖아요. 에프터 크리스마스 (After Christmas) 날을 얼마나 사람들이 기다립니까? 그 때 되면 싸게 물건 사려고 얼마나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이 시대가 어떻게 된 시대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매 주일 마다 그 매스를 그 미사를 드리죠, 매스입니다 매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매일 먹으라고 그래요 매일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그들의 십자가에는 아직까지도 예수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십자가에는 빈 십자가입니다.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미사라는 것은 매스를 얘기하고 계속해서 찢어서 피 흘려 그래서 그들은 미사에 안 오면 죽는 줄 알아요. 계속 와야 되는 줄 알아요, 이걸 바로

성사라고 그래요. 그런 행사를 통해서 구원 받는 다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새벽기도 때 카톨릭은 사람이 미어터집니다. 기독교의 새벽기도는 소수만 나가지만 말이죠. 카톨릭 새벽기도는 미어터지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아느냐하면 제가 아티샤에 있을 때 새벽기도 끝나고 그 주위에 있는 힌두교 성전이나 카지노나 또 카톨릭 교회나 이런 곳을 중심으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 중보기도 했거든요. 매일처럼 그런데 보니까 카톨릭 교회 왔는데 아주 사람들이 미어터지더라고요 야~ 참 이렇게 종교의 힘이 세구나 반면에 개신교는 얼마나 잠자고 있습니까, 이게 보통 슬픈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슬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스겔을 공부하면서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때 이들에게 일어난 일들이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번쩍 들어다가 예루살렘에 갖다 놓아서 그들이 하는 꼴을 보게 됩니다. 포로에서 잡혀 가는데 남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는가, 다 보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 우리가 구약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현실을 보게 되고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죠. 주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시험에서 건져주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스라엘백성들 이것이 악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상 사람은 죄인이죠. 유대인이나 크리스찬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악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과 죄인과 악인이 있습니다. 때문에 시편에 나오는 악인들은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들이 당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거듭나지 못 하고 종교인으로 있으면서도 이 성경을 모르면서도 유대인들이 고통 받는 그 환란에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차라리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되다고 그랬고 아버지 하나님이며 이 말씀을 보니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슬픕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슬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번 타락하면 세상사람 보다 더 악해지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을 뫼니다. 주님을 따라 다니던 가롯 유다가 주님을 떠나니까 약해졌습니다. 주님을 팔아먹고 마침내 자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며 주님께서도 그가 친구였는데 그가 친구였는데 발꿈치를 들었도다. 발꿈치를 들고 나에게 키스하고 나를 팔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이다. 이 교회 속한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거둬나서 중생되어서 새 피조물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의의 세마포를 준비하다가 주님 만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 씨즌에 한 사람이라고 부화뇌동하며 아버지, 주님을 슬쁘게 하는 사람 없도록 이제는 어린 아기 예수도 아니고 어린 아이 예수도 아니고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실 예수요 또 우리를 데리려 오실 우리 남편이신 예수요 아버지 하나님, 심판 하실 예수요 천년왕국에 통치하실 예수님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새 예루살렘에 사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세상 죄와 더불어 저들이 부화뇌동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